

필자의 생각이 담긴 언어적 구조

1. 필자의 생각은 특별하다.

제 인강 첫 부분의 명제이기도 한 이 내용은 글의 주제가 가진 특징을 말합니다. 흔히, 통념비판형 글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힘들여 글을 쓰는 이유는 글에서 말하는 것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생각을 굳이 힘들여 글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와중에 명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지문의 주제가 되기는 어렵고 이를 기초로 다른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필자의 생각의 특별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전자는 2에서 서술하겠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모순이다”

모순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行動)의 앞뒤가 서로 일치(一致)되지 아니함’을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모순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불일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통념(지구는 평평하다) vs 진실(실은 둥글다)이 이러한 구조입니다. 외부와 내부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경우도 이 경우입니다.

예컨대, 겉에서 보기엔 통명스러운 사람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인 경우에, 이는 외부와 내부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민물에 사는 물고기의 체액이 실은 바닷물의 성분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글의 주제가 될 만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행동만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 같지만, 이타적인 행동도 (전체로서의 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2번은 코를 킁킁거리는 행동이 인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에 반하여 몸이 정신적 인지를 강화한다는 내용, 즉 [정신 → 몸]에 반하는 [몸 → 정신]의 구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필자의 생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거나, 우리의 논리적 추론의 귀결과 다르거나, 겉에서 비쳐지는 것과 다른 것 등 그 내용의 중심 요소가 모순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1+1=2라는 명제보다는 1+1=3이라는 명제가 더 유력하다고 할까요?

3. 관계를 말하는 언어의 구조

여기서 이 관계에 대해 말하는 언어적 구조는 명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은 문장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S → V]의 구조라고 부릅니다. “밥을 먹는다.”와 같이 단순한 구조를 유용합니다.

다음은 인과의 구조입니다. 원인과 결과, 장과 근거 등 이 모든 것은 모두 판단의 수단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와 같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가 유용합니다.(상세한 내용은 오르비 클래스)

S → V의 구도와 X → Y의 구도는 겹쳐서 구별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참조)

마지막으로, 공존과 대립의 구조입니다. 인과적 과정들(X → Y)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와 A와 B의 대립 또는 A와 B의 공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과학적·철학적 주제의 근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출판물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힘의 작용으로서 당기는 힘과 밀리는 힘의 대립 또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공존해야 살고, 대립하면 죽는다는 생태학의 원리도, 철학의 영역에서 변증법의 전개과정에서 합(숨)에 이르는 과정도 대립과 공존의 원리를 따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됩니다.

(1) 대립의 구조

B	S → V	→
	X	

↑

↑

A	S → V	→
	-X	

